

물오른 공격 본능...광주FC 안방서 질주 이어간다

K리그1 23일 강원FC와 대결
김한길·허율 등 시즌 첫골 신고
기세 몰아 흠 3연승 도전
K리그2 전남, 안산 원정경기

광주FC가 안방에서 뜨거운 질주를 이어간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3 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물오른 공격이 반갑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대구 FC와의 원정경기에서 4-3승리를 기록하면서, DGB대구은행파크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4승을 기록하는 동안 광주는 16골을 터트리면서 DGB대구은행파크 강세를 보였다. 또 광주는 이번 승리로 올 시즌 전적 4승 2패를 기록, 5위를 지켰다. 광주는 대구전에서 3연속 득점에도 3연속 실점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광주표 공격축구를 구사하면서 후반 41분 나온 하승운의 골로 4-3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4명의 선수가 2023시즌 마수결이 골을 신고했다.

전반 18분 나온 '이적생' 김한길의 골을 시작으로 산드로-허율이 연달아 시즌 첫골을 장식했다. 결승골 주인공인 하승운도 이날 시즌 1호골을 만들었다.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뜨거운 공격은 빠듯한 일정을 앞둔 광주에 큰 힘이다. 광주는 23일 강원전에 이어 26일에는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 경기를 이어간다. 이정효 감독이 홈에서 더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하는 만큼 광주는 이번 홈 2연전에서 확실한 공격 축구를 보여줄 각오다. 어디에서 골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전방위 공격 속에 중원과 수비도 든든하다. 이순민과 정호연, 이희균 또한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티모와 안영규 센터백 조합은 안정적인 수비라인 조율과 견고한 수비로 팀 승리를 지켰다. 풀백 두현석은 매서운 크로스로 2개의 도움도 기록하는 등 광주 질주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강원은 최근 2연패를 기록하는 등 3무 4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승리가 갈릴만한 상대인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강원은 한국영, 이정협, 김영민 등 베테랑 선수들은 물론 양현준, 황문기, 김대원 등 강력한 한방을 갖춘 젊은 선수들로 전력을 갖췄다.

빠른 스피드의 측면 공격도 주의해야 한다. 광주가 적극적인 압박과 결정력으로 강원을 꺾고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숨 고른 전남드래곤즈는 23일 오후 6시 30분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와 9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8라운드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3월 4경기에서 단 1골 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전남은 김천전에 앞서 4월 4경기(FA컵 포함)에서 11득점을 만들면서 반전을 이뤘다. 이날 경기에서도 선제골은 전남의 몫이었다. 후반 26분 하남이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취점을 가져왔다. 이 골로 하남은 FA컵 포함 4경기 연속 골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김천상무 권창훈의 공세에 전남이 승리를 내줬다. 후반 37분 권창훈이 이유현의 도움을 받아 동점골을 기록했고, 후반 43분에는 김민준의 골을 도우면서 전남에 패배를 안겨줬다. 난적 상대로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한 8위 전남(3승 1무 4패-승점10)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안산으로 간다. 전남이 올 시즌 1승 2무 7패(승점5)에 그치고 있는 12위 안산을 상대로 승점 사냥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허율이 지난 16일 대구FC와 경기에서 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2~23일 개최

5개 부문 동호인 1000여명 참가

광주시테니스협회가 22~23일 광주진월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구장에서 '제6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단체전, 여자부, 지도자+동호인부, 혼합복식부, 초급자부 등 5개 부문에서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모든 경기종목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광주·전남 테니스협회 경기 규칙 및 셀프 저지 룰이 적용된다. 예선 조별리그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방식은 5:5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시스템 방식이 적용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광주시 후원을 받아 이 대회를 6년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성남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참가 선수단 모두가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대회를 치르겠다"며 "이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인구 저변확대 및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4월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제5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99세 어르신도 파크골프 즐겼다

순천시 열린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폐막

제18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순천에서 폐막했다. 순천팔마체육관 등지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 대회에서는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등 8개 종목 경기가 치러졌다. 승패를 떠나 친목을 다지는 대회여서 사·군 종합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을 실시했다.

최고령인 파크골프 김남익(99·완도) 어르신을 비롯해 게이트볼 손재환(92·강진), 궁도 김용환(83·무안), 그라운드골프 강상기(89·곡성), 배드민턴 박정수(80·보성), 산악 남춘자(77·담양), 탁구 최승재(81·장흥), 체조 오용민(87·완도), 소프트테니스 김재곤(87·나주) 어르신이 건강상을 수상했다. 개최지 최고령 참가 어르신에게 수여되는 전남

도의회 건강상은 임한규(84·그라운드골프) 어르신이었다. 전남도체육회장 특별상은 배드민턴 이기열(86·김천시), 게이트볼 김양자(81·성주군) 어르신이 수상했다. 나주B는 게이트 볼, 고흥군은 궁도, 해남군은 그라운드골프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여수시는 배드민턴, 완도군은 산악, 해남군A는 소프트테니스, 목포시는 체조, 여수시는 탁구 1위를 차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삼공사 설욕이나...SK 수성이나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5일 개막...지난 시즌 이어 리턴매치

프로농구 2022-2023시즌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이 정규리그 1위 안양 KGC인삼공사와 3위 서울 SK의 맞대결로 25일 막을 올린다. 인삼공사와 SK는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나 SK가 4승 1패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휩쓰는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은 작년과 위치를 바꿔 재대결하게 됐다. 작년에는 SK가 1위, 인삼공사가 3위로 정규리그를 마쳤고 올해는 인삼공사가 1위, SK 3위다. 또 지난 시즌에는 인삼공사가 오마리스 펠먼, 변준형 등의 부상 변수가 있었고 올해는 SK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최준용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같은 팀이 챔피언결정전에서 2년 연속 맞대결하는 것은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이번이 세 번째로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이어 올해 3월 초에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슈퍼리그 결승에서도 맞대결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결승에서는 인삼공사가 SK를 90-84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그러나 SK는 최근 정규리그부터 4강 플레이오프까지 15연승을 내달리고 있어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는다. 2년 연속 최강의 자리를 다투는 팀들인 만큼 포지션별 매치업도 국가대표 올스타급이다. 먼저 가드 자리에는 정규리그 MVP를 놓고 경쟁했던 인삼공사 변준형과 SK 김선형이 맞대결한다. 외국인 선수도 4년간 KBL 외국인 선수상을 세 번이나 받은 SK 자필 위니와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에 95경기에 나온 인삼공사 오마리스 펠먼의 정면충돌이 기대된다. 매치업에서 인삼공사가 앞서는 부분은 역시 오세근의 존재다.



지난 12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SK 송창용(왼쪽)이 골 밑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근이 버텨주는 인삼공사 골밑에 비해 SK는 최부경이 맞서지만 키 200cm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최준용의 부상 공백이 아쉽다. 벤치 자원도 인삼공사가 우위로 볼 수 있다. 김상식 감독은 아시아 쿼터로 뛰는 렌즈 아반도의 활용 폭을 챔피언결정전에 더 늘리겠다고 밝혔고, 박지훈과 배병준, 정준원, 한승희 등이 벤치에서 대기한다. 반면 아시아 쿼터를 쓰지 않은 SK는 오재현, 최성일, 최원혁 등 굵은일을 주로 하는 선수들의 '깜짝 활약'에 기대를 건다. 양 팀의 만능인 인삼공사 양희중, SK 허일영의 역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존 워 4, 킬링 로맨스
- 2관 존 워 4
- 3관 킬링 로맨스, 오디션, 보이지 않아
- 4관 스프메의 문단속
- 5관 스프메의 문단속, 겨울 속 외딴 성
- 6관 존 워 4, 65
- 9관 리바운드
- 7관 새네커를 렌필드
- 8관 새네커를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를 기울이면, 라이스보이 슬립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즐거움

문화산책

2023년 4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